

# 종합·해설

# 5년 공사 10년 지나도 ‘공사중’

#### ■ 전남북 국도 ‘찔끔 공사’ 실태

15건 공사비 2,253억원이나 불어나  
마구잡이 밭주·국고배정 지역 원인

경실련이 5일 발표한 ‘국도(國道) 건설공사 분석 자료’는 도로 건설의 난맥상을 한 눈에 보여준다. 올해 개통됐거나 개통 예정인 전국 57건의 국도 중 93%가 당초 계획보다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2배 넘게 지연된 것도 20%나 됐다. 53건의 국도건설 공사 지역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분은 1조원에 달했다.

영광~해보간 국도 확·포장(도로 21km, 교량 30개소, 터널 1개소) 공사도 5년 공사가 10년으로 늘어진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1996년 12월 착공돼 오는 11월 준공 예정이며, 공사비 증액 규모는 465억원으로 최초 계약 공사비의 40%에 육박한다.

이밖에 함평~함평IC간, 삼산~해남간, 대전~당암간, 녹동~도덕간

도로 여건이 취약한 전남지역의 경우 수도권 보다 공기 연장 기간이 훨씬 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국도를 중심으로 공기 연장 실태와 원인, 대책 등을 짚어보자.

◇5년 공사가 10년 지나도 '공사중'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소관 전남·북 15건의 국도 공사는 100% 공사 지침상 계획보다 늦어졌다. 최근 새 사업에 속구하는 절차를 거친 결과 이를 가능케 하는 '장기계속공사' 제도 때문에 공기가 지연되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간이 계획보다 들어났다. 처음 계획된 준공예정일보다 평균 2년9개월(1천3일) 공기가 지연됐다. 이로 인해 1조382억원이었던 최초 계약 공사는 물가상승과 설계변경 등에 따라 1조2천634억원으로 2천253억원(21.7%) 들어났다.

장성군 삼서면 우치리와 장성을 단  
광리를 잇는 ‘삼서~장성’간 21.6km  
의 국도 확·포장 공사는 계획상 4년  
만에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5년7개월  
이 더 지난 지난해 3월 준공됐다. 이  
기간동안 공사비는 572억원에서 1천  
124억원으로 배 가까이 늘어났다.

124억원으로 배 가까이 높아졌다. 1997년 10월 착공된 무안군 청계면 태봉리와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간 무안우회도로(도로 8.9km, 교량 6개소) 역시 당초 계획 공사기간은 3년5개월이었으나 8년3개월만인 올 1월 준공됐다. 공사비 또한 460억원에서 565억원으로 105억원 증액됐다.

# 거물 금융브로커 박금성씨 구속

대출알선 수백억 리베이트  
전치권 배후설...수사 촉각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인 윤창 열씨의 '돈줄'로 지목됐지만 형사책임을 면했던 거물급 금융 브로커 박금성(51)씨가 거액의 상가 매매 사기를 벌인 혐의가 드러나 결국 구속됐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배후에 정치권의 인사가 개입돼 있다는 소문이 끊임없이 나돌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치권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양도 권한이 없는 상가를 팔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박씨를 구속했다.

에게 임의 매도할 수 없는 한양 상가 9곳의 인  
수권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양도해 주겠다고  
속이고 23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  
다.

조사 결과 박씨는 J 은행의 주식 절반을 165억원에 매수하려고 했지만 은행측이 이를 반대하자 계약금 55억원만 지급한 뒤 나머지 대금은 주주 명의 개서를 받지 않는 등 이름들 숨긴 채 지급하려고 하는 등 ‘편법 인수’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나는

■ 바그서의 느그이기

화순이 고향인 박씨는 전남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료했다. 1993년 대양토건 대표이사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으며, 98년 회사문을 닫은 뒤 현재는 KEP전자 회사의 사외이사 등을 맡고 있다.

그러나 박씨는 8개 건설업체의 실제 운영권을 갖고, 김재중, 정부, 시장, 그룹장

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대중 정부 및 현 정부 인사들과  
교분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박씨  
는 이 같은 인맥을 바탕으로 대출을  
알선해주고 리베이트를 챙겨왔다.  
박씨는 굿모닝시티 사건뿐 아니라  
2001년 ‘이용호 게이트’ 사건 당시에  
도 이씨의 돈 5천만원을 김봉호 전 국  
회부의장에게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  
기도 했지만 번번히 수사망을 피해

